

# 유 학 생

정 원 식  
(서울대 사범대 교수)

- .....<目 次>.....
- |                   |                  |
|-------------------|------------------|
| I. 6. 25와 海外留學의 길 | III. 海外留學生의 活動分野 |
| II. 海外留學生 現況      | IV. 海外留學生이 미친 影響 |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海外에 나가 유학할 수 있는 길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고작 유학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일본에 유학하는 것이었다. 금세기 초에 미국이나 구라파에 유학한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극히 특수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본격적인 해외유학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역시 민족해방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해방후 미군정이 시행되면서 미국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그결과 미국에서 수학의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이 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를 절감한 나머지 최초의 국비유학생을 미국에 보낸 일이 있으나 그것은 극소수의 인원이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수학의 길을 얻게 된 것은 6. 25이후라고 할 것이다.

## I. 6·25와 海外留學의 길

북의 돌연한 南侵으로 시작된 6·25가 발발하자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은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면서 실전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한국군의 擴軍과 훈련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한국군의 병력은 미미한 상태였으며, 이를 단시일에 확장하는 것이 요망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한국군의 확군작업이 진행되었는데, 확군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유능한 장교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군장교

의 재교육을 미국이 담당하게 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상당수의 장교가 병과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각종 병과학교에서 修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비록 그 수학기간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많은 인원이 집단적으로 해외에서 수학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군장교의 경우가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게 된 것은 軍組織이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편제는 미국편제를 따르고 미국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教範은 미국의 교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군조직만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조직도 드물다고 하겠다.

휴전이 성립되면서, 서울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도시들이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우리의 경제는 상당한 정도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要員의 훈련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우선 정부 각부처의 要員이 선발되고 그들에게 미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이 民間에게 최초에 있었던 집단적인 해외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要員訓練계획 중에는 정부의 각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계를 대상으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피바디 프로젝트이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 서울대학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교환교수제를 실시한 것이다. 특히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醫學分野와 農學分野에 집중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게 되어 많은 수의 현직교수들이 海外에서 결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피바디 프로젝트는 한국의 교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미국 남부의 저명한 사범대학인 죄오지 피바디大學이 이 계획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교사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교육시설과 기구의 원조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인사들이 要員訓練계획에 따라 미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 II. 海外留學生現況

개별적인 해외유학의 길이 열려있기는 하였으나 정부는 외환사정 때문에 개인적인 유학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해외유학의 기회는 역시 좁은 문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80년도에 들어서면서 해외유학생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문교부에서 인정한 海外유학생 현황을 살펴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70년대에는 매년 500 명 내외의 해외유학생이 문교부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으나 80년대가 되면서 海外留學 自由化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유학생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1953년이후 문교부가 인정한 해외 유학생 累計는 60년까지에 약 5,000명, 70년까지에 약 10,000명이었으며, 80년까지에는 28,684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81년에는 한해에 5,148명이 해외로 진출했으며 82年에는 8,688명, 83년에는 6,994명이 해외유학생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81년이후 3년간의 유학생수가 지난 30년간의 유학생 총수의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海外유학생의 나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유학생수의 80% 정도는 미국으로 유학갔으며,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구라파 지역이 약 10%,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이 6% 정도이며 나머지는 기타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해외유학이 미국일변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해외유학생의 전공을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자연과학계 보다도 인문사회계가 다소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과학계란 이학계, 工學系, 醫藥系, 農林學系, 水產, 海洋系를 포함하는 것이며 인문사회계는 語文, 藝術, 社會科學, 人文科學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때, 연도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문사회계가 50%~65%를 차지한다. 물론 이것은 국가나 기관에서 파견한 유학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유학생의 전공분야를 나타내는 것이다. 海外의 先進技術과 지식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해외 유학생의 전공분포가 인문사회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國費유학생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1978年 이후 정부에서는 국비로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350명의 유학생이 이 제도에 의해서 海外에서 修學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人文社會系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비유학생의 경우 자연과학계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계 중에서도 공학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국비유학생 350명 중에서 공학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인 203명이나 된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면서 고등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III. 海外留學生의 活動分野

海外유학생이 수학을 마친 후에 모두 귀국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수가 밝혀진 바 없으나 상당수의 유학생이 수학 후에 현지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취직을 해서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이 귀국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해외유학생을 받아들일 만한 국내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것이다.

국내의 여건이 성숙치 못했다는 것은 귀국을 희망하는 해외유학생에게 적당한 직장을 마련해 주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특히 자연과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이유도 큰 짐을 차지한다.

국내에서의 보수가 선진국에서의 그것과 너무나 격차가 크다는 것도 귀국을 주저시키는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은 사정이 향상되어서 국내의 보수와 외국의 보수 사이에 그렇게 큰 격차가 있지는 않으나, 지금부터 20년전만 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나 커다고 할 것이다.

해외에서 최신의 지식을 습득하고 바로 귀국한다는 것은 용기와 혁신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수의 해외유학생은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다음 귀국해서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表 1〉 고등교육 기관의 학위별 교원수(1983년)

	국 내	국 외	계
석사학위	13,947	1,075	15,002
박사학위	4,545	2,669	7,214
총 계	26,081	4,013	30,049

海外유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大學과 연구기관이다. 특히 대학에서의 활동과 기여는 실로 괄목하다 할 것이다. 다음의 〈表 1〉은 국내大學에서의 海外學位 所持者の 비중을 나타내 준다.

〈表 1〉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수 30,049명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7,214명인데 그중에서 2,669명은 해외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이것은 박사학위 소지자중의 약 37%는 해외의 학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海外頭腦의 활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각종 연구기관에서의 활약이다. 70年代 우리나라에는 여러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이다. KIST는 후에 한국과학원(KAIS)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되었다. 이밖에 한국개발원(KDI),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기관 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대부분이 해외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180명의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중에서 140명 정도가 해외 학위소지자이며, 한국개발원의 연구원 37명중의 35명이 해외학위소지자이다. 이 점만 보더라도 연구기관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해외유학생이 선진국에서 습득해 가지고 귀국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대학과 연구기관 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기업체에서의 활용은 그 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각기업체에서는 기술분야의 해외두뇌를 거의 경쟁적으로 유치해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상당한 정도의 대우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지금은 해외유학생수가 늘어나서 사정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하고 귀국해서 기업체에 입사하면 간부사원으로서 우대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

졌다 하더라도 아직 해외유학생에 대한 選好性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IV. 海外留學生이 미친 影響

지난 30년간 이 社會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海外유학생들이 미친 영향은 실로 至大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수치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쉽게 관찰되는 可視的인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으며, 그것은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양식과 생활태도 속에 들어와 있으며,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학생을 통해서 들여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이 社會에 미친 영향을 대별해 보면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해외유학생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 중에서 역시 가장 뚜렷한 것은 學界에 미친 영향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學界는 극히 일부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황무지나 다를 바가 없었다. 學問의 中心地가 되는 大學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고 그 대학의 교수는 전원이 日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물려간 다음에 學界에 큰 공백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學界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초기의 해외유학생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각학문분야에서 첨단을 가는 지식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거의 황무지와 같은 학계에서 외국의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고 제자를 양성했으며, 학풍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해외유학생의 우리나라 學界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면서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은 그들에 의하여 구미에서 발전된 새로운 分野의 學問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 學界에서 활발한 學問的 활동을 하고 있는 학문분야 중에는 지난 30년 사이에 도입되고 발전된 학문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經營學, 行政學, 保健學, 新聞放送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문분야는 해방후 해외유학생에 의해서 도입되고 발전

된 분야이다. 海外유학생의 學界에 대한 기여는 기초의 學問을 보강하는 일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새로운 學問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海外유학생이 미친 영향 중에서 우리나라 行政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經濟政策의 立案에서부터 그 遂行에 이르기까지 해외두뇌의 활약과 기여는 눈부신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수립에 있어서 한국개발원(KDI)이 중요한 브레인의 구실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몇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입안과 평가에 있어서 한국개발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그만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개발원의 인력구성을 보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37명의 연구원 중에서 35명이 해외유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해외의 두뇌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해외유학생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서 여러 분야에서 기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상당한 수의 유학생은 海外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우수성을 해외에 과시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유학생 중에는 학위과정을 마친 다음에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이 좋은 해외에 머물면서 학문적으로 대성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도 우리나라를 위한 중요한 기여라고 할 것이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학자들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대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하게 된다.

유학생이 미친 영향 중에서 한가지 더 첨가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意識構造에 미친 은연 중의 영향이다. 유학생이 해외에서 가지고 돌아온 것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서구적인 태도와 의식구조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그것이 은연 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해외유학생은 각자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그러기에 후배나 제자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의식구조의 영향을 모두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과학

적인 사고방식과 合理性을 추구하는 태도는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서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오랜동안 修學하고 생활하는 동안에 유학생이 그러한 思考方式이나 의식구조를 받아들이고 몸에 익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외유학생이 이 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다. 그들이 도입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이 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방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막대한 기여 뒤에는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에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否定的인 면으로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文化的인 依存的인 경향을 더욱 조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랜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른바 崇儒的文化風土에서 事大主義의 思考方式과 慕華思想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漢文을 眞書라고 했겠는가. 이러한 事大的인 경향은 서구의 文物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양 것이라면, 특히 미국 것이라면 모두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文化的 依存性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主體的인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學界에서 海外의 學位를 국내학위보다 무게있게 생각하는 경향성에도 따지고 보면 文化依存의 성향이 전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의 文化的인 主體性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폭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외유학생에 관하여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것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암도적으로 미국유학생이 많다는 사실이다. 앞서 해외유학생 현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해외유학생 중의 80% 정도는 미국유학생이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는 점만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미국유학이 비교적 용이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해외유학생이 미국일변도로 집중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文化유입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해외유학생이 우리의 현실과 크게 유

리된 理論만을 전개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 그러한 경향 때문에 現實的으로 잘 수용되지 못하는 수가 있게 된다. 일부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점을 들면서 해외유학생에 대한 否定的인 감정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